

□ 대교협 연회비 책정방법 확정

대교협은 회원대학의 회비 책정내용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하여 일부 회원대학의 이견을 수렴하고, 대교협의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에서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"연회비 책정방법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"를 실시한 바, 그 결과를 토대로 지난 11월 21일 열린 71차 이사회에서 회비결정 인상폭의 준거와 회비책정 방안을 최종 심의·확정했다.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.

△ 회비결정 인상폭의 준거 : "정부 총예산 증가율"을 선택(이유:인상률이 조기에 확정되므로 대학별 회비납부액에 혼선이 없음. 대교협의 예산규모 판단이 쉬워 신속하게 중요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. 각 회원대학은 회비납부액의 예측이 가능하므로 예산편성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)

△ 회비책정 방법 : "기본회비(200만원)+학생당 경비" 안 선택(이유:각 대학은 정관에 규정한 균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고, 동등한 회원자격에 따라 회비 부담이 어느 정도 안배됨으로써 회비의 차등화 정도가 다소 완화됨)

△ 유효기간 : 3년

□ 95년도 대학관련 주요 정부예산 확보 현황

대교협은 대학재정 확보를 최우선과제로 삼아 정부, 정당, 각종 관련단체를 대상으

로 GNP 대비 5%의 교육예산 확보와 교육예산 중 16% 수준의 대학교육비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, 목표 수준에는 미달하지만 95년도 대학관련 예산은 94년에 비해 약 50% 증가되는 성과를 거두었다. 확보된 예산현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.

△ 사립대학 시설설비 확충 지원 : 875억원(94년 대비 475억원 증가) △ 국립대학교원연구비 보조 : 457억원(13억원 증가) △ 국책대학 지원 : 400억원(8개 대학 50억원씩) △ 국·사립대학 자구노력 지원 : 500억원 △ 대학원 국책지원(200억원, 신설사업) △ 국립교육기관 실습기자재 확충 : 450억원(283억원 증가) △ 학술연구 조성사업 : 600억원(200억원 증가)

□ 자료 발간

◎ International Competition and Cooperation in Higher Education (자료 94-1-14)

이 자료는 본 협의회가 지난 94년 12월 21일 여의도 63빌딩에서 '고등교육의 국제경쟁과 협력'을 주제로 개최한 국제세미나의 강연 내용이다. 이 세미나는 고등교육시장 개방에 따른 대학의 국제경쟁력 확보와 국제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는데,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△ Opening Remarks : 구병림(대교협 사무총장)

△ Keynote Speech : A Strategy for Internationalization and Globalization in Higher Education :

안병만(한국외국어대 총장)

△ Topic(I) : International Competition and Cooperation in Higher Education : Japanese Experience by Mr. Komatsu Ichiro, Council Director, Public Information and Cultural Center, Embassy of Japan

△ Topic(II) : Internationalizing the University : Strategies from an American Case Study by Dr. Ray E. Weisenborn, Executive Director, Korean-American Educational Commission

△ Topic(III) : Policy Directions for Reform and Development of Higher Education in China by Mr. Luxin Wang, Third Secretary, Chinese Embassy

△ Topic(IV) : The Concept of Market Education and the Introduction of a Variety of Organizations owned by Australian Universities by Jong Woo Kim, Manager, Australian Education Centre

△ Topic(V) : Intern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: Korean Experience : 김태완(계명대 교수)

△ Conclusion : Dr. Horace Underwood, Director, Division of International Education, Yonsei University